

## 제37회 모의고사 정답

<b>1</b>	<b>2</b>	<b>3</b>	<b>4</b>	<b>5</b>	<b>6</b>	<b>7</b>	<b>8</b>	<b>9</b>	<b>10</b>
④	⑤	①	③	⑤	①	⑤	②	⑤	②
<b>11</b>	<b>12</b>	<b>13</b>	<b>14</b>	<b>15</b>	<b>16</b>	<b>17</b>	<b>18</b>	<b>19</b>	<b>20</b>
③	③	①	④	④	④	③	①	②	③
<b>21</b>	<b>22</b>	<b>23</b>	<b>24</b>	<b>25</b>	<b>26</b>	<b>27</b>	<b>28</b>	<b>29</b>	<b>30</b>
⑤	⑤	④	①	②	④	①	③	②	④
<b>31</b>	<b>32</b>	<b>33</b>	<b>34</b>	<b>35</b>	<b>36</b>	<b>37</b>	<b>38</b>	<b>39</b>	<b>40</b>
⑤	③	③	③	⑤	②	③	①	④	⑤
<b>41</b>	<b>42</b>	<b>43</b>	<b>44</b>	<b>45</b>	<b>46</b>	<b>47</b>	<b>48</b>	<b>49</b>	<b>50</b>
①	③	④	②	④	②	⑤	④	⑤	④
<b>51</b>	<b>52</b>	<b>53</b>	<b>54</b>	<b>55</b>	<b>56</b>	<b>57</b>	<b>58</b>	<b>59</b>	<b>60</b>
①	⑤	③	②	③	①	①	③	③	⑤
<b>61</b>	<b>62</b>	<b>63</b>	<b>64</b>	<b>65</b>	<b>66</b>	<b>67</b>	<b>68</b>	<b>69</b>	<b>70</b>
④	①	②	④	③	②	③	③	⑤	①
<b>71</b>	<b>72</b>	<b>73</b>	<b>74</b>	<b>75</b>	<b>76</b>	<b>77</b>	<b>78</b>	<b>79</b>	<b>80</b>
③	④	④	⑤	④	②	⑤	①	④	④

**1. ④ ☞ (P15)**

④ 친척이나 친구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들과의 유대감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된다. 나머지는 모두 증가한다.

**2. ⑤ ☞ (P18)**

① 노년기에 이르면 과거에 존재했던 경쟁심이나 갈등이 줄어들고, 상호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②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해 여전히 고부 갈등이 존재한다. ③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된다. ④ 자녀들이 독립하여 집을 떠난 뒤에 부모가 경험하는 것이 빈둥지증후군

**3. ① ☞ (P24)**

① 독립의 원칙 ② 달리해서는 안 된다. ③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 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보호의 원칙). ④ 시설에서는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정신적 격려 서

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보호의 원칙).

**4. ③ ☞ (P39)**

구분	장 점	단 점
재가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소에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생활</li> <li>•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중심 생활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 진행</li> <li>•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곤란</li> </ul>
시설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가족, 형제, 이웃)와 떨어져 지내며 소외되기 쉽다.</li> <li>•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li> </ul>

**5. ⑤ ☞ (P41)**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곱하여 산정</li> <li>•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하고, 징수 후 독립회계로 관리</li> </ul>
-----	--

국가지원	•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
본인 일부부담	•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부담 •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 경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

6. ① (P43)

장기요양 인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장기요양 등급</li> <li>• 유효기간,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li> <li>•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서를 기관에 제시</li> </ul>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li> <li>•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의 역할</li> <li>•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포함</li> <li>• 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복지용구 기재됨</li> <li>•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li> </ul>

7. ⑤ (P57)

또는 대상자의 허락 없이 식품을 처분하지 않으며, 대상자와 함께 냉장고 내부를 정리 정돈 한다.

8. ② (P60)

①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③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④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 관리, 투약(경구약 및 외용약 제외)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9. ⑤ (P68)

10. ② (P81)

① 정서적 확대 ③ 유기 ④ ⑤ 신체적 확대

11. ③ (P89)

12. ③ (P90)

근로 기준법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 및 근로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li> <li>•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li> <li>• 취업규칙 내용</li> <li>• 종사자가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li> </ul>

13. ① (P96)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4. ④ (P96)

15. ④ (P97)

16. ④ (P120)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에는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핵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③ (P122)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에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18. ① (P127)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li> <li>•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 동반</li> <li>•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과정과 구분 곤란</li> <li>•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퇴행성 질환이 대부분</li> <li>•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li> <li>•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li> <li>• 신장의 소변 농축능력과 배설능력 저하로 약물 중독</li> <li>• 초기진단이 매우 어렵다.</li> <li>• 질환 자체가 비교적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다.</li> <li>• 활동 강도 및 노화에 따른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li> <li>•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되면 질환이 치유된 후에도 의존상태가 지속</li> <li>•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측면이 모두 연관</li> </ul>
----	--

19. ② ☞ (P141)

20. ③ ☞ (P151)

- ①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② 금연한다. ③ 매일 체중을 측정하여 부종 정도를 확인한다.
- ④ 과식은 심장에 부담을 주므로 음식을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도록 한다.

21. ⑤ ☞ (P159)

- ①②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적어지고 윤택작용이 감소되어 성교가 어렵고, 성교 시 통증이 있으나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③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도 점차 감퇴한다. ④ 골반 근육 조절능력의 약화

22. ⑤ ☞ (P167)

- ① 가슴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한다. ② 40~60% 정도가 좋다. ③ 실내 온도는 보통 20~23℃ 정도가 적당하다. ④ 자주 샤워를

하거나 때를 미는 것은 피부를 더욱 건조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간다.

23. ④ ☞ (P176)

- ②⑤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장시간 독서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피한다.

24. ① ☞ (P182)

- ② 불면증, 불안 증상이 흔하다. ③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다. ④ 있다. ⑤ 우울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25. ② ☞ (P184)

- ① 급성질환 ③ 주의력 감퇴 ④ 갑자기 나타남 ⑤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함

26. ④ ☞ (P194)

- ① 파킨슨질환 ② ③ 치매 ⑤ 당뇨병

27. ① ☞ (P200)

- ② 금기가 아니라면 물을 충분히 마신다. ③ 비타민 D를 섭취한다. ④ 무기질, 비타민, 항산화물질 섭취를 위해 해조류, 버섯류, 채소, 과일류 먹는다. ⑤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는다.

28. ③ ☞ (P202)

- ①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한다. ②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한다. ④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⑤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한다.

29. ② ☞ (P208)

-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 :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30. ④ ☞ (P208)

- ①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31. ⑤ (P216)

① 장갑, 방한복, 방한모자, 마스크, 목도리 등을 착용해 몸을 따뜻하게 한 후 나가야 한다. ②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지 않는다. ③ 새벽보다는 낮에 운동한다. ④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32. ③ (P425)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33. ③ (P440)

서비스와 관련된 회의는 사례회의

34. ③ (P500)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자 :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전 19세 이상 / 본인 직접 작성</li> <li>• 중단가능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li> <li>• 중단불가능 :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li> <li>• 등록기관에 등록하면 효력 발생</li> <li>•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 가능</li> <li>• 등록했어도 의료기관과 연동되는 것은 아님, 가족에게 알려야함(연명의료 정보시스템 확인하면 작성여부 열람 가능)</li> <li>•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도록 하는 안락사와 차이</li> </ul>
--------------	--

35. ⑤ (P504)

부정 (고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과 고립의 단계</li> <li>•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li> <li>•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에 충격적으로 반응하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li> </ul>
---------	---

분노 (반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혹은 “왜 지금이야”</li> <li>•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불만스러운 면만을 찾으려고 한다.</li> <li>• 목소리를 높여 불평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한다.</li> </ul>
타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제3의 길 선택</li> <li>• 비이성적인 요구 감소</li> <li>•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인정해.”</li> <li>•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 주세요.”</li> <li>• 삶이 얼마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li> </ul>
우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더 이상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침울해지는 단계</li> <li>•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한다.</li> <li>• 대상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그냥 두어야 한다.</li> <li>• 말보다는 손동작이나 접촉이 훨씬 더 필요하다.</li> </ul>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단계</li> <li>•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갖는 마지막 정리 시간</li> <li>• “나는 지쳤어.”</li> </ul>

36. ② (P226)

①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정도이어야 안전하다. ③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는 것이 가장 좋다. ④ 팔받침,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안전하고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⑤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가 쉬워진다.

37. ③ (P231)

① 비위관이 빠지면 바로 시설장 등에게 알린다. ②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

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린다. ④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⑤ 처방에 따라 영양액을 따뜻하게 준비한다(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도록 한다).

38. ① ☞ (P234)

②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되도록 돕는다. ③ 물과 함께 ④ 약병에서 약 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긴다.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⑤ 가루약 복용 방법

39. ④ ☞ (P236)

① 유효기간 경과한 약은 버린다. ② 대상자가 앉거나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③ 대상자의 아랫눈꺼풀(하안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서 투여한다. ⑤ 멸균 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40. ⑤ ☞ (P237)

41. ① ☞ (P246)

②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한다. ③ 침대를 올려 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④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⑤ 시계방향으로 마사지한다.

42. ③ ☞ (P248)

① 편마비의 경우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45° 비스듬히 붙인다. ② 변기 밑에 ④ 침대 높 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⑤ 이동변기 내에 있는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고 환기한다.

43. ④ ☞ (P250)

①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필요

한 노출은 피한다. ③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의 발적, 상처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한다. ⑤ 먼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은 다리 아래로 접어 내린다.

44. ② ☞ (P252)

① 소변주머니를 방광(아랫배)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③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빼면 요도점막이 손상되므로 심하게 당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④ 소변량과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한다. ⑤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는다.

45. ④ ☞ (P255)

① 입안을 모두 닦아 낸 뒤 수건으로 입 주변의 물기를 닦아 내고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입술보호제를 발라준다. ② 대상자가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며,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여준다. ③ 치매대상자가 양치질을 거부할 경우 물치약이나 2% 생리식염수로 적신 거즈를 감은 설압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시에 묻혀 치아와 입안을 닦아준다. ⑤ 입안을 닦아 낼 때 혀 안쪽이나 목젖을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너무 깊숙이 닦지 않는다.

46. ② ☞ (P261)

두발 전용 세정제 사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일 때</li> <li>• 모발에 내용물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 마사지</li> <li>•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li> </ul>
-----------------	--

47. ⑤ ☞ (P266)

①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② 귀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③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다면 깎아 준다. ④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준다.

48. ④ (P270)

①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②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 ③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⑤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49. ⑤ (P279)

50. ④ (P283)

51. ① (P283)

52. ⑤ (P292)

작동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그재그 : 막길 / 경사길 / 비탈길 / 언덕길 → '길'</li> <li>• 뒤로 이동 : 무조건 내려갈 때</li> <li>• 앞바퀴 들어 올린 경우 : '터' (턱, 통) → 문턱, 도로턱, 울퉁불퉁</li> <li>• 엘리베이터 :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주차와 같은 방법).</li> </ul>
------------	--

53. ③ (P297)

① 두 사람이 침대에서 침대로 옮길 때

54. ② (P304)

계단 오를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팡이 ㉡ 건강한 다리</li> <li>㉢ 마비된 다리</li> </ul>
계단(평지) 내려갈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팡이 ㉡ 마비된 다리</li> <li>㉢ 건강한 다리</li> </ul>

55. ③ (P309)

①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린다. ② 배설물 처리 후에는 장갑을 착용하였더라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④ 혈액이나 체액이 묻었을 때 찬물로 닦고 더운물로 헹구며 필요시 소독해야 한다. ⑤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건을 따로 세탁하거나 씻는다.

56. ① (P326)

② 물속에서 사용되므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③ 편안한 자세로 목욕할 수 있도록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어야 한다. ④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⑤ 감전예방을 위해 충전용 배터리만 목욕리프트의 전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57. ① (P334)

② 계단을 이용해 이동한다(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③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④ 최대한 자세를 낮춘다. ⑤ 벽을 짚은 손을 바꾸면 오히려 더 깊은 실내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벽을 짚은 손을 바꾸지 않는다.

58. ③ (P338)

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빼야 코드와 플러그가 손상되지 않는다. ② 물은 전기를 쉽게 전도시키므로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전기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하다. ④ 전선이 벗겨져 있는지 다른 파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코드를 꽂지 않도록 하며 연결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59. ③ (P370)

①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는다. ② 죽이나 미음 같은 식품은 반드시 75℃ 이상 온도까지 가열한다. ④ 채소나 과일은 물에 약 3분 정도 담근다. ⑤ 냉장식품 보관기간은 1~2일

60. ⑤ (P380)

① 햇볕에 말리면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다. ② 양모, 오리털 등의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③ 너무 폭신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 쉽다. ④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하며 촉감이 좋은 재질을 사용한다.

61. ④ (P58, 388)

사고가 날 경우 요양보호사의 책임이므로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 없음을 설명하거나, 차량 이용시 요양보호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 옆에 있어야 함을 설명한다. 차량을 이용할 때는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와 밀착시켜 안전하게 오르내리게 하고, 승차를 지원하되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게 한다.

62. ① (P401)

63. ② (P411)

노인성 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인다고 의심하는 경향</li> <li>•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li> <li>•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li> <li>•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li> <li>• 몸짓, 얼굴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li> <li>•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li> <li>• 보청기를 착용할 때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li> <li>•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li> </ul>
-----------	--

64. ④ (P412)

언어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한다.</li> <li>•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li> <li>• 면담 시 앉아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li> <li>• 말이 확실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개를 끄덕여 듣고 있음을 알린다.</li> <li>•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한다.</li> <li>•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li> <li>• 잘 표현하였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한다.</li> </ul>
----------	---

65. ③ (P413)

주의력 결핍 장애	<p>=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li> <li>•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li> <li>•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li> <li>•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li> <li>•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력결핍장애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li> <li>•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li> <li>•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li> </ul>
-----------------	---

66. ② (P442)

67. ③ (P447)

① 낮에는 가능하면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② 변기 옆에 ④ 배뇨곤란이 있는 경우 야간에 수분섭취를 제한한다. ⑤ 벨트나 단추 대신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를 입도록 한다.

68. ③ (P453)

① 문턱을 없앤다. ② 냉장고에 부착하는 과일이나 채소 모양의 자석은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④ 문고리는 여닫기가 용이하도록 막대형으로 설치한다. ⑤ 2층보다는 1층이 좋다.

69. ⑤ (P456)

반복 질문이나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70. ① (P458)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한다.

71. ③ (P462)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72. ④ (P463)

① 행동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②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③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진다.

73. ④ (P464)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

74. ⑤ (P465)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삼가고, 방문객을 제한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따라서 대상자를 다른 곳으로 격리하거나 여자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75. ④ (P471)

① 막연하게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보다는 신체 부위를 짚어가며 '여기가 아프세요' 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하여야 한다. ②③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 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⑤ 대상자에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한다.

76. ② (P493)

〈악기 연주하기 활동목표〉

- 청각적 자극을 통해 주의력, 얼굴과 손 등 소근육 기능, 표현력 및 기억력을 향상한다.
- 우울증, 불안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한다.
- 감정을 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77. ⑤ (P521)

①④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②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③ 냉찜질

78. ① (P529)

② 100~120회/분의 속도 ③ 매 압박 시 압박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④ 흉골의 가장 하단에 있는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가슴압박 30번과 인공호흡 2번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한다.

79. ④ (P534)

① 패드를 붙인 후 심장 리듬분석 ②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③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는다. ⑤ 자동 심장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 반복한다.

80. ④ (P5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